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15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해외의료팀장 전희순 ☎440-2736 • 담당자 박은조 ☎440-27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병원장들 만나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 관내 9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병원장과 간담회 갖고 협력 당부 -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상품개발, 유치 전략 등 논의,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고부가가치산업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6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관내 9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병원장들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가천대길병원 김우경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홍승모 병원장, 인하대병원 이택 병원장·최선근 진료부원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현수 병원장,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 나은병원 하현영 병원장, 비에스종합병원 김종영 병원장, 아인병원 권순표 행정원장,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점차 회복하고 있는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인천만의 특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 의료기관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민선 8기 인천시 역점시책 및 시정 방향 공유와 비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 환자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웰니스관광·숙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재외동포 대상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사업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천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인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치의료기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인천만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유치의료기관들과 시가 정책을 공유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7,9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외국인 환자 13,000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달 타깃

국가인 몽골 현지에서 인천 의료관광 단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13,000명을 유치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산·소득·고용 유발효과 등을 합쳐 588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외국인 환자 및 재외동포들이 1000만 도시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인천이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역 유치의료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치의료기관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